

2013 매력철철이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 Ⅱ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마친 다음 주, 10월 25일 - 26일
철학과인 축제인 미네르바의 향연! <청춘바람>.

첫 미네르바의 향연을 맞이했던 당시 신입생 강성도 학생의
후기

청춘들이 불려오는 바람, 미네르바의 향연

13학년 강 성 도

제주대에는 많은 축제들이 있다. 아라대동제를 시작해서 아라채전, 그리고 각 단대의 체육대회, 그리고 무수한 캠프들과 MT. 하지만 과 단위로 주체가 돼서 축제를 열고 여러 학우들에게 자신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과축제가 나는 제일 재밌고 커다란 축제라고 생각한다. 철학과 같은 경우는 ‘미네르바의 향연’이라는 이름으로 매해 축제를 열고 있다.

1년 전, 내가 처음 신입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선배들은 미네르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나는 왜 우리과만 하는 조출한 축제를 저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막상 미네르바가 다가와도 몸치에다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나로서는 뭔가를 해낸다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미네르바가 가까워오자, 많은 동기들과 형, 누나들이 나의 힘을 필요로 했고 나 또한 우리 과에 대한 애정으로 그리고 철학과가 다른 제주대 학우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춤을 연습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느꼈다. 영상을 수 백 번 돌려보면서 한 동작 한 동작 따라 해보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셀 수 없이 했다. 하지만 함께 가는 철학과의 학우들의 격려와 응원 속에서 우리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그것은 남들 앞에서 주눅대기만 하던 나에게 새로운 전율과 추억을 선사했다.

■ 2013 매력철철이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

나는 미네르바의 향연을 통해 사람들과 몸으로 소통하는 법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철학과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경험을 모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들간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준비해왔고 그만큼 많이 기뻐워졌다.



2013 매력철철이들이 함께 했던 시간들 Ⅱ

이 마네르바의 행진이 끝난 후, 우린 그 날로 비로 MT를 떠났고 그 후 12월 초 기밀고사를 본 후에 2학기 정기총회와 중강파티를 마지막으로 긴 겨울방학을 맞이했었고

우리는 이제 다시 2014 한 해가 시작하며 돌아오는 봄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끝